A병원 기부금 확대 제안

> **분석 기준**: 2023년 손익계산서 (47개 상급종합병원) **작성일**: 2026-01-26 (v2: 2026-01-28 최신 동향 반영)

Executive Summary

A병원은 **B권역 의료수익 1위(5,117억원)** 병원이지만, 기부금수익은 **6억원(0.12%)**으로 권역 최하위 수준입니다.

경쟁병원인 C병원(4.08%), D병원(3.21%)과 비교하면 기부금 비율이 **1/30 수준**에 불과합니다.

권역 평균 수준만 달성해도 **+60억원**, **C병원 수준**이면 **+203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v2 추가] 2024년 국내 기업 기부금이 전년 대비 **+15% 증가(5.2조원)**하고, 지역 소재 대기업이 연간 **35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기부를 집행하는 등 외부 환경이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

1. A병원 재무 현황

1.1 기본 현황

항목	금액	비고
의료수익	5,117억원	권역 1위
의료이익	-73억원	적자 (-1.4%)
당기순이익	72억원	흑자 (1.4%)
기부금수익	**6억원**	**권역 최하위**

1.2 비용 구조

비용 항목	금액	비율	권역 순위
인건비	2,615억원	51.1%	2위 (높음)
재료비	1,771억원	34.6%	중간
관리운영비	803억원	15.7%	최하위 (효율적)

1.3 의료외수익 구조

항목	금액	의료수익 대비
의료외수익 합계	352억원	6.9%
이자수익	70억원	1.37%
연구수익	46억원	0.91%
기부금수익	**6억원**	**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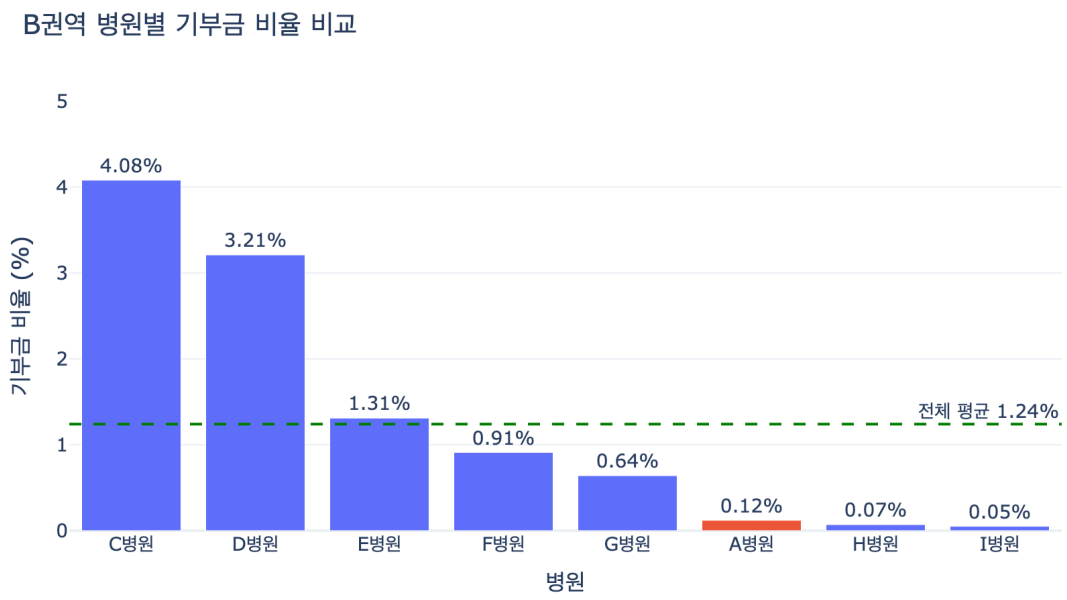
---

2. 경쟁병원 비교 분석

2.1 B권역 8개 병원 비교

병원	의료수익	기부금	기부금비율	의료이익률
C병원	4,788억	**195억**	**4.08%**	-8.5%
D병원	4,887억	**157억**	**3.21%**	-5.0%
E병원	4,031억	53억	1.31%	8.6%
F병원	3,995억	36억	0.91%	1.3%
G병원	3,047억	19억	0.64%	-1.2%
A병원	**5,117억**	**6억**	**0.12%**	-1.4%
H병원	3,185억	2억	0.07%	-2.0%
I병원	3,563억	2억	0.05%	-0.2%

2.2 기부금 비율 비교 차트



핵심 발견: - A병원은 **의료수익 1위**이면서 **기부금은 6위** - 국립병원(C, D병원)이 기부금 확보에 강점 - 전체 47개 병원 평균(1.24%)에도 크게 미달

2.3 의료수익 vs 기부금 비교 차트



불균형 분석: - A병원: 의료수익 5,117억 → 기부금 6억 (0.12%) - C병원: 의료수익 4,788억 → 기부금 195억 (4.08%) - **동일 규모 대비 기부금 격차: 32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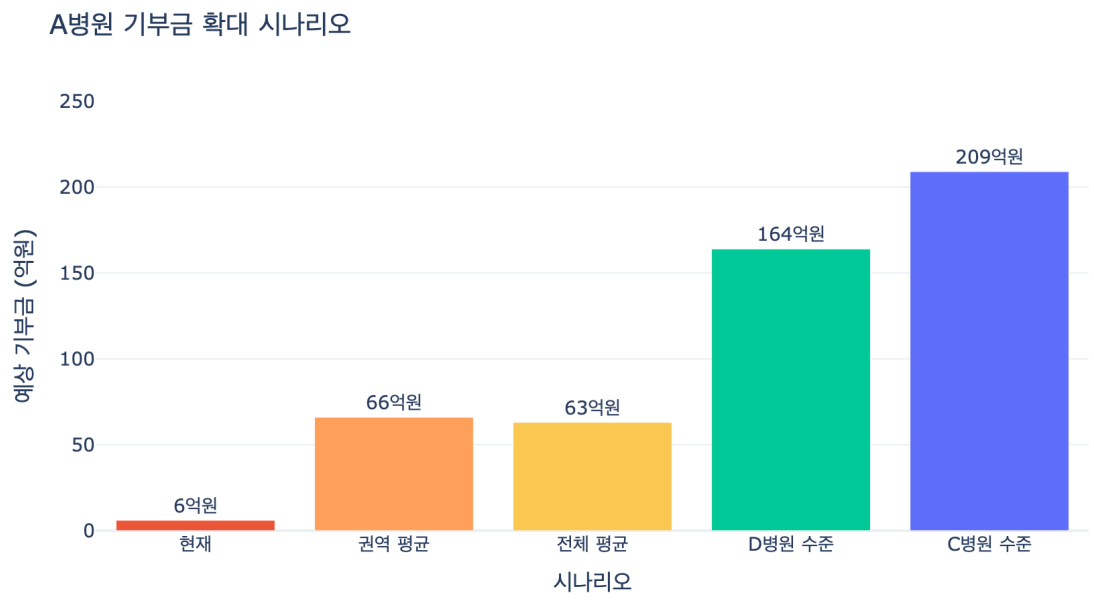
---

3. 기부금 확대 시나리오

3.1 목표별 기부금 예상액

시나리오	목표 비율	예상 기부금	현재 대비 증가
현재	0.12%	6억원	-
권역 평균	1.30%	66억원	**+60억원**
전체 평균	1.24%	63억원	**+57억원**
D병원 수준	3.21%	164억원	**+158억원**
C병원 수준	4.08%	209억원	**+203억원**

3.2 기부금 확대 시나리오 차트



4. 벤치마킹 대상 분석

4.1 C병원 (기부금 비율 1위: 4.08%)

항목	C병원	A병원	비교
의료수익	4,788억	5,117억	A병원 +7%
기부금	195억	6억	**C병원 32배**
기부금비율	4.08%	0.12%	**C병원 34배**
설립유형	국립	사립	-

C병원 기부금 확보 요인 (추정): - 국립대학병원으로서의 공공성 이미지 - 지역사회 연계 기부 프로그램 - 의료취약계층 지원 사업 홍보 - 동문/교수 네트워크 활용

4.2 J병원 (전체 1위: 4.27%)

항목	J병원	A병원
의료수익	14,036억	5,117억
기부금	600억	6억
기부금비율	4.27%	0.12%

---

5. [v2 신규] 최신 기부금 트렌드 및 외부 환경 분석

5.1 국내 기부금 시장 동향 (2024년)

구분	금액	전년 대비
기부금 총액	16.8조원	+8,000억원
개인 기부	11.7조원	+1,300억원 (실질 -1.2%)
기업 기부	**5.2조원**	**+6,700억원 (+15%)**

> 기업 기부가 **전년 대비 15% 대폭 증가**한 반면, 개인 기부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병원 기부금 확대 전략은 **기업 기부 유치**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2 선도 병원의 기부 혁신 사례

J병원: 디지털자산(비트코인) 기부 체계 구축

- 2025년 11월, J병원은 **최초로 디지털자산 형태의 기부를 접수** (비트코인 1개, 약 1.57억원)
- 기부자는 누적 기부금 **10.5억원 이상** (기존 현금 9억원 + 비트코인)
- J병원은 이를 계기로 **디지털자산 기부 접수 절차를 정비**하고, 교육·연구·진료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활용할 투명한 운영 체계를 마련 중

> **시사점**: 기부 채널의 다변화가 새로운 기부자층 유입에 효과적. A병원도 디지털자산·간편결제 등 **신규 기부 채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K의료원: 비대면 기부 마라톤

- 비대면 기부 마라톤 **5주년** 달성
- 모금액 **5,000만원 전액**을 화상 피해 소방관 치료 지원에 기부
- **명확한 기부 목적**(소방관 지원)이 참여율을 높이는 핵심 요인

L기업-J병원: 기업-병원 장기 파트너십

- L기업은 J병원 **어린이통합케어센터 건립에 100억원 약정**
- 이후 이용자·임직원·회사 동참 기부금 **1.7억원 추가 전달**
- **명명 기부 + 지속적 후원 연결**의 모범 사례

5.3 의료기관 ESG 경영 확산

주요 병원들이 ESG 경영 체계를 본격 도입하고 있습니다:

병원	ESG 추진 현황
M병원	ESG 추진전략 수립, 정기 ESG 보고서 발간
N병원	2021년 ESG 위원회 발족, 10대 실천과제 설정
O병원	ESG 운영위원회 발족, 137개 경영지표 모니터링

> **시사점**: ESG 보고서를 발간하는 병원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ESG 사회공헌 예산이 병원으로 유입**되는 통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A병원도 ESG 체계를 구축하면 기업 기부 유치의 기반이 됩니다.

5.4 지역 대기업 사회공헌 현황

지역 대기업 P그룹

항목	내용
2025년 성금	**350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달)
누적 기부액	**4,640억원** (2003년~)
주요 사업	지역아동 지원, 인재 육성, 글로벌 사회공헌
의료 기부	소아암 극복 **2.77억 달러(약 3,600억원) 이상** 기부

> P그룹은 연간 35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기부를 집행하고 있으나, **A병원과의 직접적 파트너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는 곧 **미개척 기회**를 의미합니다.

지역 대기업 Q사

항목	내용
지역 대표 사회공헌	**1,020억원** 규모 지역 인프라 투자 후 무상 기증 전례
봉사 인력	근로자 1,900여명, 23개 봉사팀
헬스케어 분야	사회적 약자 건강관리,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추진

> Q사는 지역에 1,020억원을 투자한 전례가 있으며, 현재 **헬스케어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A병원이 **의료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접점이 존재합니다.

5.5 지역 나눔캠페인 현황

- 지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목표 모금액: **72.5억원**
- 2026년 1월 기준: **54.4억원** (나눔온도 75도)
- **기업 기부가 전체의 70% 이상** 차지

> **시사점**: 지역 기부 시장에서 **기업 기부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합니다. A병원의 기부금 확대 전략도 기업 대상에 집중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

6. 제안 사항

6.1 단기 목표 (1년)

목표: 권역 평균 수준 달성 (1.30%, 66억원)

전략	예상 효과
기부금 전담 조직 신설	체계적 모금 활동 기반
기부자 관리 시스템 구축	기존 기부자 유지율 향상
의료취약계층 지원 사업 홍보	기부 명분 강화

[v2 추가] 단기 실행 과제:

전략	근거	예상 효과
ESG 보고서 발간 준비	M·N·O병원 등 선도병원 추세	기업 ESG 예산 유치 기반
디지털 기부 채널 도입	J병원 비트코인 기부 사례	신규 기부자층 확보
비대면 기부 이벤트 기획	K의료원 비대면 마라톤(5,000만원 모금) 사례	시민 참여형 기부 문화 조성
지역 나눔캠페인 연계	지역 나눔캠페인 (72.5억 목표)	기존 기부 인프라 활용

6.2 중장기 목표 (3년)

목표: C병원 수준 달성 (4.08%, 209억원)

전략	예상 효과
기부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기업 기부 유치
지역 대기업 파트너십	지역 주요 기업 연계
명명 기부 (병동/시설)	고액 기부자 유치
유산 기부 프로그램	장기 기부 파이프라인

[v2 추가] 핵심 파트너십 전략:

대상	현재 사회공헌 규모	A병원 연계 방안
P그룹	연 350억원 (누적 4,640억)	특화 의료센터 명명 기부
Q사	지역 인프라 1,020억 투자 전례	헬스케어 분야 의료 파트너
L기업 모델 벤치마크	J병원 어린이센터 100억 약정	A병원 특화센터 기업 약정 유치

6.3 지역 특성 활용

기회 요인	활용 방안
지역 대기업 본사 소재	기업 사회공헌 연계
에너지/제조업 중심 지역	ESG 경영 트렌드 활용
산업재해 특화 지역	산재 예방/재활 기부 프로그램
지역 유일 상급종합병원	지역사회 필수의료 명분

---

7. 기대 효과

7.1 재무적 효과

시나리오	추가 기부금	의료이익 개선
권역 평균 달성	+60억원	-73억 → -13억 (적자 감소)
C병원 수준 달성	+203억원	-73억 → +130억 (흑자 전환)

7.2 비재무적 효과

- 지역사회 신뢰도 향상
- 의료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연구/교육 투자 재원 확보
- 우수 의료인력 유치 경쟁력 강화

---

8. 결론

A병원은 **권역 최대 규모의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확보에서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병원 대비 기부금 비율이 **1/30 수준**이라는 점은 **개선 여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역 평균 수준만 달성해도 연간 60억원, **C병원 수준이면 2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현재 의료이익 적자(-73억원)를 상쇄하고도 남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v2 추가] 특히 2024년 기업 기부금이 전년 대비 15% 급증하고, P그룹(연 350억원)·Q사(1,020억 투자 전례) 등 지역 소재 대기업의 사회공헌 규모를 고려하면, **기업 기부 중심의 전략적 접근**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부록: 데이터 출처

- **분석 대상**: 2023년 상급종합병원 손익계산서 (47개 병원)
- **데이터 출처**: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분석 도구**: Python (pandas, plotly)
- **작성**: Claude Code

[v2] 추가 참고 자료

- 국내 기부금 총액 분석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24)
- 주요 병원 디지털자산 기부 사례 (2025)
- 빅5 병원 경영 분석 (2025)
- 의료기관 ESG 트렌드 (2025)
- 지역 대기업 사회공헌 보고서 (2025)

본 리포트는 공개된 재무제표 및 공개 뉴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기부금 확대 전략 수립 시에는 추가적인 내부 분석이 필요합니다.